2026.10.19 · 전날 독해

아직 납득되지 않았다

오늘 먼저 읽을 글은 무라토리 단편 연대 논쟁의 마무리 글입니다. 4세기설을 주장하는 학자들의 논문과, 그 논문을 읽고도 납득하지 않은 반대쪽 학자의 답변이 나란히 실렸습니다. 같은 주말에 한 경제학자는 자신이 오랫동안 써 온 경기 예측 변수가 왜 2024년에 빗나갔는지를 스스로 복기했고, 한 정치철학자는 자신이 자란 전통의 사각지대 네 개를 열거했습니다. 논쟁과 모형이 자기 한계를 말하는 하루입니다.

새 글 8편 전문 독해, 4편 분석.

대상은 10월 18일 00:00~23:59 KST에 수신된 새 글입니다. 본문을 모두 읽은 뒤 골랐습니다. 출처의 주장과 제 해석을 구분하고, 직접 확인하지 못한 내용에는 그 범위를 밝힙니다.

10월 16일 보고에서 로스차일드의 4세기설을 다뤘습니다. 이번 Jesus Memoirs 글은 그 연재를 닫으며 학술지 특집호에 실린 두 논문을 정리합니다. 로스차일드와 톰프슨의 「꿀에 쓸개를 섞다」와 페르헤이덴의 「반대편의 목소리」입니다. 두 논문의 존재를 확인했습니다. 정리는 블로그 필자의 것이며 논문 원문을 읽은 것은 아닙니다.

로스차일드와 톰프슨 쪽 논증의 뼈대는 장르입니다. 이 단편은 4세기 정경 목록들과 달리 저자 정보와 신학 논쟁을 담고 있어 목록보다는 프롤로그에 가깝고, 확인되는 프롤로그 문헌은 390년 이후에나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복음서들의 조화, 신앙 규범, 7개 교회 서신 구조, 로마 주교좌의 중심성이라는 통일성 주제는 다양한 정경 문서를 하나의 교리 체계로 묶으려는 4세기의 관심과 맞습니다. 히브리서 생략은 서방 전래의 증거가 아니라 여러 이유로 설명될 수 있고, 목자 헤르마스가 로마 주교 피우스의 동생이라는 전설은 4세기 이전에 증거가 없으며 성립 자체가 부자연스럽다고 봅니다. "우리 시대에"라고 읽어 온 라틴어 표현을 "우리의 처지에서"로 읽을 가능성도 제시합니다. 로마와 아퀼레이아의 4~5세기, 크로마티우스와 암브로시아스테르와의 평행이 지리와 시대를 잡아 준다는 정리입니다.

페르헤이덴은 배움과 창의성을 인정하고도 납득하지 않습니다. 저자, 연대, 출처, 원어, 장르, 목적 모두가 미지수라고 인정하면서도, 이 문헌의 이질적 성격은 4세기의 퇴보한 목록보다 2세기의 개척적 시도로 읽는 편이 낫다고 봅니다. 다수설인 2~3세기설은 목자 헤르마스 문장에 걸려 있는데, "가장 최근에"라는 부사를 단편 저자의 시대와 잇는 쪽이 자연스럽고, 로스차일드의 번역은 근거가 없다고 반박합니다. 프롤로그가 4세기 말 이전에 없었다는 것은 증거의 부재일 뿐이고, 베네딕트 프롤로그가 단편을 사용한 사실이 같은 장르라는 뜻은 아니며, 생략 추론들은 대체로 침묵으로부터의 논증이라고 지적합니다. 아리우스파 포티누스와

마니, 도나투스를 이단 명단에서 읽어 내는 재구성은 추측적이라고 평가합니다. 제 판단으로 이 답변의 힘은 다수설의 고수가 아니라, 자기 쪽의 미지수를 먼저 내놓고 상대의 창의적 재구성에만 같은 잣대를 요구한다는 데 있습니다.

두 논문을 나란히 읽으면 논쟁의 현재 위치가 보입니다. 어느 쪽도 문헌을 새로 찾아낸 것은 아니고, 같은 이상함을 어느 시대의 정상으로 설명하는 편이 덜 억지인지 겨루는 중입니다. **이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어느 가설이 맞는가가 아니라, 각 가설이 어떤 종류의 억지를 요구하는가의 목록입니다.** 10월 16일의 원칙이 여기서도 작동합니다. 연대가 달라지면 이 문헌이 답할 수 있는 질문이 달라집니다. 2세기 문헌이면 당대 정경 형성의 증거이고, 4세기 문헌이면 후대가 자기 과거를 정리한 방식의 증거입니다.

경제에서는 Econbrowser의 수익률 곡선 스프레드 글이 같은 태도를 보여 줍니다. 장단기 금리차는 미국 경기침체의 가장 믿을 만한 예측 변수로 꼽혔지만, 2022년 말의 강한 역전 뒤 2024년의 침체는 오지 않았습니다. 친과 페라라의 새 논문은 이 오발을 표본 특이성, 동시성, 생략 변수로 분해합니다. 확인한 NBER 워킹페이퍼의 존재와 맥락이 일치합니다. 결과는 저자들의 계산이며 제가 재현한 것은 아닙니다.

논문의 정리는 이렇습니다. 2020년 이전까지 스프레드는 미국, 캐나다, 독일에서 정확했지만 이후에는 덜 정확했습니다. 기간 프리미엄을 따로 넣어도 예측은 나아지지 않고, 예상 실업률 변화를 넣으면 일부 나아지며, 부채상환비율을 넣어야 설명 분산 비율이 0.26에서 0.57로 오르고 2024년의 오발 없이 1990~91년과 2008~09년 침체를 잡아낸다고 합니다. 눈여겨볼 것은 이 수정 모형도 2020년 팬데믹 침체는 예측하지 못한다고 저자들이 밝힌다는 점입니다. **자기 모형이 잡는 침체와 못 잡는 침체를 함께 보여 주는 정직함**이 지난주의 검산 이야기와 이어집니다. 다만 부채상환비율이 도움이 된다는 것은 이 표본과 설정 안의 결과이며, 금융 순환이 침체의 원인이라는 주장과는 다릅니다.

철학과 경제학이 만나는 자리에서는 리사 헤르초크의 PPE 에세이를 남깁니다. 철학·정치·경제를 함께 하는 학문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심포지엄에 대한 답변인데, 자신이 이 전통에서 자랐다고 밝힌 필자는 네 가지 사각지대를 듭니다. 젠더와 인종, 환경과 행성의 한계, 부유한 사회가 가난한 나라로 비용을 옮기는 세계적 차원, 그리고 아카데미 밖의 지식을 받아들이는 초학제성입니다. 특히 두 번째는 경제학의 고전적 질문 자체를 흔듭니다. 파이를 키울 수 없다면, 즉 정상 상태나 물질 소비 축소로 가야 할 규범적 이유가 있다면 분배 정의의 오래된 질문들이 다르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예상되는 반박 두 개에 대한 답도 짧지 않습니다. 규범이 너무 복잡해진다는 걱정에는, 세계적 상호의존 속 모든 개인의 존엄과 자율에 같은 도덕적 무게를 두는 도덕적 평등주의가 여전히 작업 기반이 될 만큼 현실과 거리가 멀다고 답합니다. 한 연구자가 다 배울 수 없다는 걱정에는 팀으로 일하라고 답합니다. 다만 필자가 덜 낙관하는 대목이 따로 있습니다. 이런 연구가 공론장과 정책으로 번역될 가능성입니다. 부유한 엘리트의 포획과 억만장자가 소유한 미디어 환경 탓에 경제 민주주의에 관한 논문 쓰기가 미래 세대에 보내는 병 속 편지처럼 느껴진다는

고백입니다. 제 판단으로 이 에세이의 무게는 네 목록보다 이 마지막 문단에 있습니다. **학문의 교정은 낙관하고 그 번역의 정치는 낙관하지 않는다**는 비대칭이 이 시대 지식인 문학의 한 표정입니다.

작은 경제 글 하나를 덧붙입니다. 화면 시간에 관한 Marginal Revolution의 소개가 인용하는 파이낸셜타임스 존 번-머독의 계산입니다. 원 칼럼의 존재를 확인했습니다. 품질 조정 화면 시간 가격 지수는 2000년 이후 39% 하락했는데, 그 하락은 거의 전부 품질 개선이지 기기나 구독료의 하락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질 디지털 지출은 오히려 1인당 52% 늘었습니다. 화면이 사교와 독서를 가격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늘어나는 돈을 치르고서라도 편의와 주의 포획으로 이겼다는 정리입니다. 수치는 칼럼의 계산이며 재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싸져서 이긴 것인지, 비싸도 이기는 것인지에 따라 정책과 자기 관리의 처방이 달라집니다.**

오늘 글들의 공통점은 선언이 아니라 복기입니다. 연대 논쟁의 반대자는 납득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자기 쪽의 미지수를 먼저 열거했고, 경제학자는 자기 변수의 오발을 표로 보여 줬고, 철학자는 자기 전통의 사각지대를 직접 셌습니다. **한 입장의 무게는 그 입장이 감수하는 불편함의 목록으로 잴 수 있습니다.**

꼭 읽을 글은 무라토리 단편 연재 마무리입니다. 10월 16일 보고와 짝을 이루며, 논쟁에서 양쪽이 각각 무엇을 양보할 수 없는지가 정리돼 있습니다. 수익률 곡선 글은 예측 실패를 다루는 모범적인 복기이고, 헤르초크의 에세이는 PPE라는 분야의 지도를 그리는 데 참고가 됩니다.

독해 범위를 밝힙니다. 무라토리 단편 논문 두 편은 블로그의 정리를 읽은 것이며 원문 논문을 읽지 않았습니다. 수익률 곡선 논문의 수치는 저자들의 결과이며 재현하지 않았습니다. 화면 가격 수치는 칼럼의 계산입니다. 서로 다른 글을 연결한 판단은 제 해석입니다.